

# 전두환, 13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가 재판 출석을 위해 1년여 만에 다시 광주를 방문한다.

## 알츠하이머 핑계 법정 불출석 하면서 골프장행 12·12사태 40주년 주역들과 호화식사 '자축'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왜 이래"하며 버럭 화를 내고 법정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법정 출석을 위해 광주를 찾지만, 그간 보여준 행적들로 인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씨의 회고록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후 그해 7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전씨는

변호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 악화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된 불참으로 인해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거론하자 전씨는 부인과 함께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첫 출석 이후 계속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는 한가롭게 골프를 치거나, 12·12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전씨가

지난해 11월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전씨는 임 부대표에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나는 학살에 대해 모른다", "나는 광주 시민 학살하고 관계 없다"거나 "발포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군에서 명령권 없는 사람이 명령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건강상의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5월 단체는 전씨를 즉각 구속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전씨는 12·12사태 40주년을 맞아 군사반란 주역이자

5·18 광주학살의 공범으로 꼽히는 하나회 출신 군 인사들과 호화 식사를 하며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2019년 12월12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식당에서 전씨가 5·18 광주학살의 책임이 있는 정호용, 최세창씨 등과 부부동반으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샤스핀 오찬'을 한 사실을 공개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2·12 자축 만찬 등 전씨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는 믿음이나 신뢰를 조롱하는 짓"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형을 내리고, 궁극적으로 5·18 당시 시민들을 학살한 책임을 추궁해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 [전두환 재판 일지]

- ◇2017년
  - ▶4월3일 전두환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 왜곡 회고록 '흔돈의 시대' 출간
  - ▶4월27일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 ▶5월 광주지법, 5·18관련 자료 수집
  - ▶9월 광주지법,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 ◇2018년
  - ▶1월 광주지법,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 ▶2월-5월 광주지법, 국방부특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 ▶3월11일 광주지법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 ▶5월3일 광주지법, 전두환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 ▶5월2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일정 연기
  - ▶7월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 ▶7월16일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두번째 재판 일정 연기
  - ▶8월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 ▶9월21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 ▶10월2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 ▶10월8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 ▶11월29일 대법원,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 ◇2019년
  - ▶1월4일 전두환씨 측 재판 기일 변경 신청, 법원 기일변경 신청 기각
  - ▶1월7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구인영장 발부
  - ▶3월11일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 ▶11월7일 전두환씨, 강원도 홍천 한 골프장에서 골프
  - ▶12월12일 전두환씨, 12·12 군사반란 40년 기념 호화오찬
  - ▶12월16일 검사측, 재판부에 불출석 유지 여부 재판단 요청
- ◇2020년
  - ▶1월15일 재판 담당 장동혁 부장판사 사직
  - ▶3월16일 광주지법, 4월6일 재판 재개 결정
  - ▶4월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공판준비기일서 전두환씨 불출석 허가 취소
  - ▶4월27일 전두환씨 공판기일 출석 예정

## 5·18단체, 흰색 소복에 검은 마스크 쓰고 침묵·평화 시위 퍼포먼스 예고

27일 전두환씨(89)가 광주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면서 5·18단체가 침묵시위를 예고했다. 2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전두환 출석 공동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단체들은 전씨가 출석을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 없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자고 입을 모았다. 5·18유족회 회원들은 5·18추모제 때 입는 흰색 소복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 등장했던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도 등장한다. 5월 단체는 전씨 출석일에 맞춰 광주지법 앞에 동상을 전시하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경찰은 경비를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과 함께 전씨의 공판기일에 대한 경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전씨가 광주 법정에 출두할 당시 여러가지 돌발상황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불상사를 막기 위한 꼼꼼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11일 전씨가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서 과정

에서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전씨의 차량을 막는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씨의 차량이 법원을 나서는데 40여분 정도가 걸렸다. 이를 우려해 최관호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양우천 광주 동부서장 등이 최근 광주지법을 방문해 전씨의 이동경로와 경비 배치 등 경호 방안을 논의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동선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시민과 취재진 등의 인파를 통제해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전씨의 출석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비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당시 5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작년 전두환이 처음으로 재판에 참석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표출했다"며 "이번에는 광주와 정신을 묵묵히 전달하면서 퍼포먼스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은 전두환을 다시 감옥에 가게 된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씨는 2017년 4월 폐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에 시민들 분노 폭발

광화문서 설치됐던 '무릎꿇은 전두환' 광주 이전 오늘 전두환 광주 재판 출석일, 광주지법 앞 설치



26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을 신발로 내리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18을 겪지 않았어도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알죠."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광주 재판에 두번째로 출석하는 가운데 재판 출석일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앞에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이 설치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두환 동상은 무릎 꿇고 포승줄에 묶인 채 최창설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였다. 5·18단체는 지난해 서울 광화문에 설치했던 전두환 동상을 전남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로 불리는 옛 전남도청 앞에 옮겨 설치했다. 전두환 동상의 최창설에는 뽕망치가 하나 걸려있어 시민들이 오가며 뽕망치로 전두환 동상을 내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길을 지나던 한 시민은 전두환 동상에 성큼성큼 다가가 뽕망치

를 집어 들어 힘껏 내리쳤다. 김모씨(58)는 "이 동상을 내리친다고 속이 시원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동상이 아니라 전씨가 자신의 죄값을 달게 받아 40년간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모씨(38) 역시 뽕망치로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을 연신 내리쳤다. 그는 "82년생이라 5·18민주화운동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5·18을 겪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전두환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5·18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이혜중씨는 "5·18 40주년을 맞아 우리 아이들이 5·18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방탈출' 콘셉트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런 동상과 콘텐츠 등을 통해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5·18에 관심을 갖고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18단체는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27일 광주지방법원 앞에 무릎꿇은 전두환 동상을 옮겨 설치한 후 전두환 엄중 처벌과 5·18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선욱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